

아나운서와 방송언어

손범규·SBS 아나운서, 국어학 박사

1. 아나운서와 방송

아나운서의 전성시대(全盛時代)이다. 방송에서 주로 보이는 아나운서들은 단순한 방송의 '꽃(?)'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 이제 아나운서는 한 명의 출연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진행자로서, 누리꾼들의 댓글에 의해 순간적으로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기도 하는 뉴스 생산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절제된 언어를 구사하면서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해 주던 방송인의 대명사 아나운서. 왜 지금 아나운서들은 변하고 있을까? 아나운서 본인이나 시청자들 모두 방송 환경의 변화와 함께 아나운서도 달라져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일명 '아나운서 머리'로 불리는 모두가 비슷해 보이는 머리 모양, 진한 색상의 정장 차림, 딱딱한 일방 전달의 방송 진행은 변해야 한다. 그러나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

아나운서의 변화에 찬성하는 시청자들은 '신선하다, 아나운서들이 편해졌다, 재미있다'와 같은 반응이다. 그러나 아나운서의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아나운서와 연예인의 차이가 없다, 경박하다, 신뢰가 없다'는 시청자들은 아나운서가 재미와 인기를 좇다가 아나운서만의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단 한 사람의 아나운서로서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뉴스와 시사 교양 분야에만 한정된 아나운서의 활동은 획일적이고 정체되기 쉽다. 또 그동안 자신의 끼를 발휘하지 못했던 아나운서들에게는 방송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재미있게 전해 주는 아나운서를 싫어할 일은 없을 것이며 방송을 통해 한국어 선생님의 역할을 해 왔던 아나운서의 출연이 많아진다면 언어 교육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출연료의 직원 아나운서들의 활용은 항상 적자인 제작비를 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방송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이해가 들어맞아 요즘 아나운서의 인기는 상한가(上限價)를 기록하고 있다.

2. 아나운서와 언어

아나운서의 언어 구사 능력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뛰어난 편이다. 그래서 아나운서를 '언어의 미술사, 언어의 연금술사'로 부르기도 한다. 선배 아나운서들은 아나운서를 '언어운사(言語運士)'로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직업 이름이 외국어에서 유래된 아쉬움을 쉽게 풀어보자는 것인데, 언어운사라는 호칭 안에는 '언어를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 나가야 한다'는 아나운서들의 바람과 선비[士]처럼 지내왔던, 드러나지 않지만 항상 방송 현장에 있었던 아나운서 선배들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는 선배 아나운서를 기리는 후배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방송의 한 시대를 풍미하시며 모든 방송인의 사표가 되신 준엄한 선비...
그러나 달과 술을 사랑하셨던 낭만인, 당신은 한국의 영원한 아나운서
(이계진 前 아나운서가 쓴 故 장기범 아나운서 비문의 일부)

그래서 많은 아나운서들은 항상 어문 규정과 사전을 가까이에 놓고 우리 말에 대해 공부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방송사의 많은 제작 부서

에서도 우리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먼저 아나운서실에 확인했었다. 수십 년 동안 각 방송사의 아나운서실은 ‘한국어 연구팀, 우리말 연구팀, 우리말 길라잡이 연구회’와 같은 모임을 만들어 우리말을 공부해 왔고 우리말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 학계와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우리말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나 아나운서가 방송의 전면에 나서면서 준비가 덜 된, 아나운서가 갖추어야 할 우리말에 대한 공부와 방송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한 아나운서들도 상업적인 면에서 방송에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새로운 얼굴과 억지로 만든 재미로 방송을 구성하는 일부 제작진의 생각과, 인기만 얻으면 된다는 소수 아나운서들의 잘못된 만남은 ‘억지로 망가지는’ 아나운서를 만드는 지경까지 왔다. 물론 아나운서가 연예인처럼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나운서의 연예인화’는 아나운서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방송의 주역에서 밀려난, 영역이 축소된 아나운서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 선택은 아나운서 본인들의 몫이다. 또한 아나운서가 연예인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끼를 발휘하더라도 우리말의 적절한 구사와 아나운서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아나운서라야 프로그램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한 시인의 시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말할 수 없는 것들/말 안 해도 되는 것들/말하나 마나 한 것들
 말하고 나면 후회할 것들/말 안 하면 우습게 보는 것들
 기어코 말해야 하는 것들/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것들
 말만 많은 것들/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들/그 말이 그 말인 것들
 말 들으나 마나 한 것들/말만 잘하는 것들/닿고 닿은 것들
 말없이는 안 되는 것들/말로는 안 되는 것들
 할 말 안 할 말 막히는 것들/말 없어도 되는 것들……

(박용하, 입김)

아나운서가 ‘말만 많은 것들, 그 말이 그 말인 말만 하는 것들, 할 말 안

할 말 막히는 것들, 말 없어도 되는 것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3. 다시 아나운서

아나운서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많은 프로그램에 투입되었지만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 성적표는 크게 좋아진 것이 없다. 시청자들이 아나운서에게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끼와 억지 재미가 아닌 것이다. 오래된 술이 은은하지만 깊은 향기를 가지고 있듯이 아나운서도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애정, 우리말에 대해 계속 공부할 때 아나운서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나운서로서 같고 닦았던 우리말 실력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직업적 경험을 접목시켜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전영우 교수와 김상준 교수는 공부하는 아나운서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아나운서가 해야 할 일이 많다. 특히 방송 언어의 체계적 연구는 아나운서의 몫이다. 학계에서도 독자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방송 언어의 특성상 아나운서의 연구가 효율적이다. 전통적인 방송 언어의 문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방송 환경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언어학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방송 언어의 정의, 역할과 같은 개론과 보도 프로그램의 뉴스 담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교양과 예능 프로그램의 음성 언어와 자막을 포함한 세부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아나운서의 활동이 활발한 요즘, 한 선배 아나운서가 말해 준 아나운서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본다.

아나운서란 방송이 의도한 바를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매개자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식견과 훈련이 필요하며,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남다른 소명 의식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

방송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나운서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방송에 대하여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아나운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방송에 대하여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아나운서가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참고 문헌

- 김상준(1997), 『방송 언어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박갑수(1998), 『한국 방송 언어론』, 집문당.
손범규(2002), 『아름다운 우리말을 위해 아나운서가 간다』, 살림.
이계진(1992), 『아나운서 되기』, 우석출판사.
차재은 외(2003), 『방송 언어와 국어 연구』, 월인.